



[마켓·부동산] 정지원 KRX 이사장 “코스닥, 모험자본의 산실로 재도약” 12



[스포츠] 사진경기 컬링·스키점프 올림픽 성적 죽집게 될까 18



영어 60점 받고도 서울대 합격... 절대평가에 변별력 ‘뚝’

전형 방식 따라 영어 변별력 요동 서울대·고려대 등 등급 점수차↓ 수험생, 대학별 입시 복잡해져

〈2018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정시 최초 합격자 영어 등급 분석(추정치)〉

구분	정시 수능 영어 등급간 점수차	최초 합격자 영어 등급 분포(추정)
서울대	1등급(0점), 2등급(-0.5), 3등급(-1.0), 4등급(-1.5) 등	1등급(61%), 2등급 이하(39%) 등
고려대	1등급(0점), 2등급(-1), 3등급(-3), 4등급(-5) 등	1등급(63%), 2등급 이하(37%) 등
연세대	1등급(100점), 2등급(95), 3등급(87.5), 4등급(75) 등	1등급(98%), 2등급 이하(2%) 등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4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에 따라 대학별 전형 방식에 따라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요동친 현상이 처음 확인됐다.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정시모집 대학별 최초합격자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영어는 원점수 60점대(만점 100점)를 받은 지원자가 서울대 공대 원자핵공학과에 합격했다.

또 서울대 최초 합격자 중 영어 2등급 이하 비율은 39%로 추정됐다. 지난해까지 수능 영어 4등급을 받은 지원자가 서

울대 정시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고려대도 영어 2등급을 받은 합격자가 나왔다. 합격자 중 2등급 이하 비율은 37%였다. 반면 연세대는 영어 2등급 이하 비율이 2%이하로 추정되는 등 학교마다 수능 영어의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별 등급제 수능 영어에 대한 등급간 점수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등급간 점수차가 미세하지만 연세대는 상대적으로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한 결과다.

실제로 서울대는 1~4등급간 점수차를 0.5점으로 적용했고, 고려대는 1~2등급은 1점 차이, 2~3등급은 2점차, 3~4등급은 2점차였으나, 연세대는 1~2등급간 점수차가 5점, 2~3등급 7.5점, 3~4등급간 12.5점차를 두는 등 등급간 점수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등급간 점수차가 작은 서울대와 고려대 최초합격자의 영어 1등급자는 각각 61%와 63%였지만, 점수차가 큰 연세대의 영어 1등급자는 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등급 이하 분포 또한 서울대



서울대학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숭실대와 국민대 등은 등급간 4~5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오종은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외관상 단순해졌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입시가 복잡해진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전략적으로 영어를 포기하라는 조언은 하지 않지만,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정했다면 그 대학이 전형 방식에 맞추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와 고려대가 각 39%, 37%나 됐지만, 연세대의 2등급 이하 분포는 2%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학별 등급간 점수차에 따라 수험생들의 수능 영어 학습량도 차등을 두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서강대는 등급간 점수차가 작아 변별력이 약하고,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은 점수차가 커 영어

한편 대학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 록은 7일~9일까지 진행되고,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대학별 오는 10일~2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정시 미등록 총원 기간이 작년 포함 지인으로 인해 대입 전형이 1주일 순연으로 미뤄짐에 따라, 전국 199개 은행지점과 30개 우체국에서 휴무일인 2월 10일~11일에도 등록금 납입이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달라진 ‘취준생 트렌드’ 학점 지고 자격증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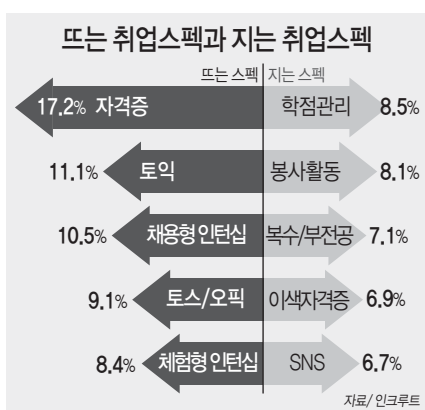
학점보다 자격증·토익 더 중요해

구직자들의 준비하는 취업 스펙이 달라졌다. 과거 학점관리와 복수·부전공이 취업을 준비하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직무자격증과 어학시험이 대세다. 특히 채용형 인턴십을 노리는 구직자들이 일반화됐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경험자 707명을 대상으로 ‘뜨는 스펙, 지는 스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들의 취업 스펙 변화가 확인됐다.

‘본인 혹은 주변에서 최근 한창 준비하고 있거나 중시하는 대표적인 스펙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묻자, ‘전공 또는 지원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준비’가 17.2%로 1순위 스펙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익(11.1%)’과 ‘채용형 인턴십 준비(10.5%)’가 각각 2, 3순위를 차지했다.

이런 스펙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



자료/인크루트

에는 34.5%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추세라서’라고 응답했다. ‘주변에서 다들 준비하는 추세라’(26.7%), ‘달라지는 채용 풍토에 적합한 준비 항목이라고 생각되어서’(1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부는 ‘내 개성을 알릴 수 있는 항목이라’(11.4%), ‘상대적으로 준비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7.5%) 등의 답을

했다. 반대로 과거와 비교해 등한시되는 스펙으로는 ‘학점’(8.5%), ‘봉사활동’(8.1%), ‘복수/부전공’(7.1%) 등 한 때 취업시장에서 맹위를 떨쳤던 스펙들이 ‘지는 스펙’으로 꼽혔다.

학점이나 봉사활동, 복수·부전공 등에 소홀해지게 된 이유로는,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적은 항목이라’(28.3%), ‘기업에서 크게 요구하지 않는 추세라’(24.4%), ‘달라지는 채용풍토에 적합하지 않은 준비항목이라’(14.5%) 등의 답변을 내놨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실무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준비하고, 특히 채용형/채용형 인턴이 구직의 필수사항으로 등극했다”며 “이는 블라인드 채용 등 달라진 채용풍토에 따른 구직 트렌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사랑해요 선생님’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문영여고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경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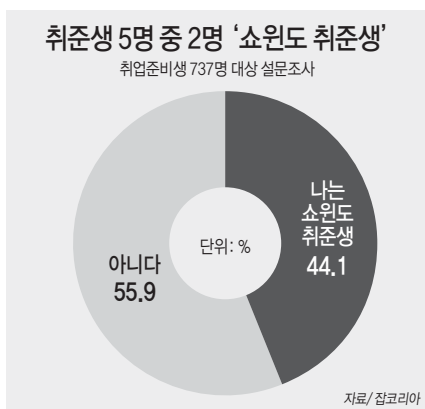
높은 취업 스펙에 좌절... 5명 중 2명 ‘쇼윈도 취준생’

스펙 경쟁에 취업 의지 낮아져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 이상이 취업 의지가 낮은 이른바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쇼윈도 취준생들은 주로 넘기 힘든 높은 취업 스펙에 좌절해 취업 의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에 따르면, 최근 취준생 737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쇼윈도 취준생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44.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스스로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밝힌 이유(복수응답)로는 ‘상향 평준화되는 스펙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32.6%), ‘취업이 너무 어려워져’(31.4%), ‘가족/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28.6%), ‘취업을 당연한 일로(너무 쉽게)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지쳐서’(27.4%)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잡코리아

쇼윈도 취준생들은 일반 취준생보다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고, 우울증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자신이 있는지’ 묻는 결과 ▲쇼윈도 취준생 그룹(26.8%)이 ▲일반 취준생 그룹(36.4%)보다 9.6%p 낮았다. 반면 취업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답변은 ▲쇼윈도 취준생 그룹(80.9%)이 ▲일반 취준생

그룹(75.5%)보다 5.4%p 높았다.

쇼윈도 취준생 중 취업을 아예 포기한 경우는 소수였다. 쇼윈도 취준생 중 ‘취업 준비를 하며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답변이 48.9%로 가장 많았고, ‘취업 준비를 하긴 하지만 취업할 것이라 기대는 없다’는 답변이 28.3%,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며 취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답은 16.6%였다.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척만 한다’는 답변은 6.2%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취준생 대다수(89.0%)는 향후 쇼윈도 취준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쇼윈도 취준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55.6%)’, ‘취업 지원정책 증가(38.7%)’, ‘취업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36.2%)’, ‘우수 강소, 중소기업 지원/홍보(대기업 선호 인식 전환)(28.2%)’ 등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

삼표·쿠쿠 등 중견기업 상반기 공채 모집

2018년 상반기 지원서 2월 중 마감

국내 전체 고용의 약 5.5%를 창출하는 중견기업들의 2018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채가 시작됐다. 모집 부문과 기업별 요구하는 직무역량이 상이하므로 상세 채용공고 확인이 필수다.

7일 사람인에 따르면, 삼표그룹, 쿠쿠, 신도리코, 위닉스, 대명레저산업, 일성건설 등이 2018년 상반기 공채 지원서 접수 2월 중 마감한다.

삼표그룹은 삼표산업, 삼표기초소재,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삼표피씨엔지니어링, 삼표시멘트, 삼표자원개발 등 7개 계열사에서 2018년 상반기 대졸 공채 지원서 접수를 오는 11일 마감한다. 계열사별 모집부문과 필요역량이 상이하고 모집부문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채용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쿠쿠는 2018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9일 마감한다. 모집분야는 전략유통, 해외영업, 영업지원, 제품설계, 회로설계, 금형개발, 디자인관리 등 14개 부문이다. 신입의 경우 자재관리와 생산 관리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중견기업 공채 소식	
자료제공 : 사람인	
(삼표그룹) 2018년 삼표그룹 대졸 공개채용	01.29 ~ 02.11
쿠쿠 2018년 상반기 쿠쿠 신입·경력 모집	01.31 ~ 02.09
(신도리코) 2018년 3월 분기공채	01.25 ~ 02.08
위닉스 위닉스 부문별 신입·경력사원 채용	02.01 ~ 02.28
(대명레저산업) 대명그룹 각 부문 신입·경력 채용	02.01 ~ 02.18

/사람인

신도리코는 2018년 3월 분기공채를 지원서 접수를 8일 마감한다. 신입 모집은 R&D, MR, DSE, 전산직, 해외영업직, 해외업무직에서 이뤄진다. 해외영업직의 경우 ▲영어권 해외취업 취득 및 취득예정자 ▲국내학위 취득(예정)자로서 TOEIC 스피킹 레벨 7 또는 OPic AL(Advanced Low) 이상 수준이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부사장면접, 임원면접), 3차 신체검사 순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위닉스는 상품전략실, R&D 본부, 부품제조본부, 품질경영팀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한용수 기자